

〈하기 글은 2016년 2월 23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위원들이 2월 정기회의를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2월 정기회의는 위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분위기였는데요. 지역주민과의 소통지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2016년에도 계속됩니다!

지난 2월18일,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첫 회의인 만큼 반가운 인사와 정다운 덕담이 오고 갔는데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 삼성전자가 아르헨티나에서 공개한 ‘삼성 세이프티 트럭(Safety Truck)’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 삼성 세이프티 트럭(Safety Truck) <http://news.samsung.com/kr/GXvHY>

삼성 세이프티 트럭(Safety Truck)이란 후면에 설치된 비디오 월로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럭을 말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추월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삼성 세이프티 트럭(Safety Truck)이 개발됐는데요.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공유를 마친 후 삼성전자 DS부문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보청기 전달식’, ‘Cafe 休(휴) 나래울점 오픈식’ 등 다양한 소식을 위원들과 공유했는데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삭아삭 사랑나눔 김장축제’와 ‘드림락서’, ‘주민 자녀 예체능 교실’,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활동’ 등 2016년에 진행될 활동 계획들도 간략히 소개됐는데요. 지역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동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화성캠퍼스 폐수처리장에 가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폐수처리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은 반도체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주인들은 폐수를 체계적인 정화과정을 거쳐 오산천과 원천천으로 방류합니다. 이어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삼성전자의 폐수 처리 시스템에 한층 더 깊게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근종 위원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열린 정기회의인 만큼 더욱 힘차고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겨울 동안 진행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가 4월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니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가고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늘 열린 자세를 가진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진행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2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풍성한 의견과 활발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던 날인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상생과 상호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힘찬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